

# EBS연계 고전시가 <만연사답> 폭풍 요약본

LaUNCH-TIME

게이야, 우는 소리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하나 없고, 사시사철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세상 모든 일에는 변화가 있는 법인데, 좋은 것이라고 평생 가지도 나쁜 일이라고 평생 가지도 않는다. 다른 이들도 유배지에 머물다 임금 은혜로 다들 복귀했으니, 우리 게이도 언젠가 처지가 나아질 거다.

아까 보니까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자살할 것 같으면 조선 사람 절반은 이미 죽었겠다.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너만 억울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을 보아하니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미친 사람처럼 매일 북쪽(한양)만 그리는 걸 보니, 굳이 자살하지 않아도 명의로 고칠 수 없는 지독한 상사병으로 앓다가 죽겠구나.

너 지금 힘들다고 죽으면 당장 너는 편하겠지만 혼자 남으실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너 떠나고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젊은 아내와, 아버 없이 자라야 하는 어린 자식도 생각해봐라. 네 주위 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엄청날 거다. 지나간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봐라.

솔직히, 너 지금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임금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인 것을 벌써 잊은 것이냐? 부모님 은혜는 벌써 잊었냐? 너 이렇게 죽으면 그 은혜는 안 갚을 생각인 것이냐? 이렇게 죽으면 충과 효를 동시에 저버리는 것이니, 죽어서 귀신 될 생각 말고 살아서 할 일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너 귀양 끝나고 서울 갈 때 나도 좀 같이 가보자.

돌아가는 배타고 바다 건널 적에 선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얼마나 즐겁겠나, 그때는 슬픈 이별노래 말고 신나는 음악에 네 이야기를 가사로 실어서 흥겨운 노래나 부르자. 그렇게 배타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산들은 또 얼마나 즐겁고 반갑겠는가?

한강 다리 건너면 매일 같이 꿈에도 그리던 곳이라, 한양의 그 화려한 분위기를 생각해봐라. 너희 집에 돌아가면 부모처자 모두 네 손을 잡고 반겨줄 것이니, 그 동안 겪었던 모든 괴로움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양에서도 지금의 고통 잊지 말고 나라에 충성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옛 기억 떠올릴 때면 지금 내 말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 문서는 청소년 서체로 작성되었습니다.

12월 3일까지는 이 자료의 무단 복제와 공유를 허락합니다.